

威靈仙의 藥理에 대한 四象醫學的 考察

정국영* · 송일병*

The Bibliographical Investigation of effect of Clematis mandshurica Maxim.

Jung Kuk-yung · Song Il-byung

Departmen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th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and Method : We have many difficulty of using the existing medical Hurb based on the theory of Yin-yang and the five elements, this is why we still do not explain the Sasang Constitutional medical Hurb Classification and do not have the Sasang Constitutional Pharmacology exactly. so we easily enter into a dispute and confusion.

So through literary consideration about clematis mandshurica Maxim.

I try to objectify Sasang Constitutional Clasification of Clematis mandshurica Maxim and the spirit of using Clematis mandshurica Maxim and common property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al Hurb and try to find out a clue that search the effect of other Sasang Constitutional Medical Hurb.

Result : Qi(氣) and mi(味) of Clematis mandshurica Maxim has bitter and hot taste and have won Qi(溫氣), the color is dark, the using portion of clematis mandshurica Maxim is root as medial Hurb.

So Clematis mandshurica Maxim fall down from lung and divied impurity and purity and able to remove the symptom that dryness and fever is solidified like Magnoliae cortex(厚朴).

Clematis mandshurica Maxim have the effect of awakening Jin-Qi(眞氣) of lung and divide impurity and purity of Qi(氣) and ack(液) and improve the fuction and structure of

* 경희대학교 한의학과대학 사상의학과

Taeumin(太陰人)

I think that the method of literay consideration on objectification of Sasang Constitution Pharmacology is of great value.

Key wards : the existing medical Hurbs, Sasang Constitutional Medical Hurb Classification, Sasang Constitution Pharmacology, awakening Jin-Qi(眞氣) of lung, divide impurity and purity, objectification

초 록

1. 目的 및 方法

陰陽五行的 氣味論에 立脚한 既存藥物들을 四象醫學內의 각 體質病證에 사용코자 했을때 아직까지도 그 藥物의 精確한 體質所屬과 四象醫學의 藥理를 설명하지 못하고 混沌과 論爭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본 研究는 威靈仙이라는 藥物을 통해 藥物의 體質所屬과 體質病證下에서의 用藥精神 그리고 體質藥物의 共通屬性을 客觀化하며 각 다른 藥物의 藥理糾明의 客觀化 研究에 그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文獻的 考察의 方法을 위주로 현재 사용되는 威靈仙의 種類와 學名을 살펴보고 각 文獻 上에서 기술된 威靈仙의 藥效를 검토하였고 필요에 따라 다른 藥物을 引用하였으며 東醫寶鑑과 四象處方 중에 威靈仙을 單方으로 사용하거나 포함한 方劑가 있는 門을 종합 정리하여 그를 통해 威靈仙의 體質所屬과 效能을 비교 검토하였다.

2. 結果 및 結論

기존 本草論의으로 威靈仙은 氣味가 苦辛溫하여 색이 검고 藥用部位가 뿌리여서 상초인 肺를 兼하여 下降하며 燥濕祛痰 및 分別淸濁하여 厚朴과 같이 燥熱이 凝結한 疾患에도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藥理는 單味를 떠나 四象醫學內의 體質病證에 소속되는 과정중에서 太陰人의 氣液의 分別淸濁작용을 통한 肺以呼, 肝以吸의 昇降調節의 用藥精神을 찾을 수 있고 醒肺之眞氣의 藥性을 가짐을 알수 있다. 機能과 構造를 동시에 改善시키며 단순 治濕이 아닌 氣液之氣의 呼散吸聚관계로만 설명가능함을 또한 확인 할 수 있었다. 향후 四象體質 藥물의 客觀化에 文獻的 考察의 方法은 그 유용성 및 가치가 크다 할수 있다.

중심어 : 既存藥物, 四象體質藥物分類, 四象體質藥理學, 醒肺之眞氣, 分別淸濁, 客觀化

I. 序 論

이 세상에 醫學이 시작되었을 무렵부터 수많은 약

들이 존재하였고 그런 藥物이 疾病治療의 目的을 위해 處方이 정하여지게 되었다. 張仲景의 傷寒論 이후 수많은 醫家들에 의해 處方이 만들어져 왔다.

그것이 각 醫家들의 論爭과 經驗들 속에서 발전되어
져 왔지만 조선후기 李濟馬의 東醫壽世保元에서와
같이 독특한 四元 構造의 人間觀을 통해 宇宙本體와
人間을 규정하고¹⁾ 기존 藥材의 새로운 體質的 分
類와 새로운 用藥精神을 바탕으로한 創方은 실로 前
代未聞의 醫學이자 未曾有의 역사적 사실이다. 기
존 藥物理論이 陰陽五行的 氣味論에 입각한 經驗의
集大成이라면 四象醫學에서의 藥理는 哀怒喜樂 四氣
의 특성을 바탕으로 太少陰陽人 각각의 氣의 偏向性
을 보충하는 四象體質病證안에서 이야기되고 이해될
수 있는 전혀 새로운 藥理를 가지고 있다.²⁾ 즉 氣
의 昇降原理에 따른 病證藥理라 할수 있는 것이다.
東武遺稿³⁾에 나타난 藥性歌을 살펴보면 少陰人藥은
모두 脾에 작용하여 그 성질이 溫熱하며 升提시키는
것이 많고 少陽人藥은 모두 腎에 작용하여 그 성질
이 寒冷하며 降泄 시키는 약이 많다⁴⁾. 太陰人은 모
두 肺에 작용하여 祛濕潤燥清熱시키는 등 既存藥物
의 효능과는 전혀 다른 설명을 가하고 있다. 그렇
다면 이제껏 東武遺稿와 四象新編에서 분류되어 있
는 많은 藥物을 각 體質病證에 사용코자 했을때 각
각의 藥物의 體質別 區分과 用藥精神을 客觀化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 된다. 그래서 필자는 威靈仙이라
는 藥物을 통해 藥物의 分類精神과 體質病證下에서
의 運用精神을 文獻的 考察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氣味, 歸經이 어느 體質病證에 所屬되는 지를
밝히고 그리고 威靈仙이 單味를 떠나 體質病證안에
소속되는 過程과 構造, 機能兩面으로 威靈仙이 氣液
之氣 代謝의 과정중에 미치는 影響 그리고 同一體質
에 있어 다른 藥物의 運用에 있어서의 藥物運用精神을
威靈仙의 文獻的 考察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II. 本 論

1. 植物學的인 接近

1) 異名과 來源⁵⁾

代表的인것으로 能消(開寶本草) 鐵脚威靈仙(本草綱目) 威苓仙(珍珠囊) 黑脚威靈仙(生草藥性備要)등으로 記錄되어있으며 미나리아재비과 식물 威靈仙의 뿌리이다

2) 植物學的分類

威靈仙: 쌍자엽식물-미나리아재비강-미나리아재비목-미나리아재비과-미나리아재비아과-미나리아재비속-으아리속-위령선⁶⁾

1) 宋一炳. 韓醫學에 나타난 陰陽觀. 四象醫學會誌 1997;9(1):p6-7

2) 宋正模. 四象醫學의 原理와 哲學的 背景에 대한 考察. 四象醫學會誌 1992;4(1): p26-27

3) 朴性植. 東武 李濟馬의 家系와 生涯에 대한 研究. 四象醫學會誌 1996;8(1): p25

韓國精神文化研究院 所藏本인 東武遺稿는 濟衆新編과 遺藁抄 이외의 遺稿와 東武의 詩 上疏文 편지글, 遊覽을 통한 각 도의 風俗이나 旅行記錄, 關幽草, 外交論, 教子平生箴, 八卦箴叢論, 知風兆 및 後人이 記錄한 李濟馬에 대한 記錄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이 책은 년기미상의 필사본으로 著者가 명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용으로 보아 東武의 著書임이 분명하다

4) 宋正模. 四象醫學의 原理와 哲學的 背景에 대한 考察. 四象醫學會誌 1992; 4(1): p.26-27

5) 김창민. 신민교. 안덕균. 이경순 외. 完譯 中藥大辭典. 圖書出版 鼎談. 1998; 7卷 p4285

6) 고경식. 관속식물 분류학. 세문사 1994; p78-202

〈표 1〉 中國의 威靈仙 種類⁸⁾

이름	학명	산지
산교	<i>clematis hexapetata</i> Pall	중국 동북, 화북, 산둥, 강소
소목통	<i>c. armandi</i> Franch	중국 운남, 호남, 광서, 절강
주과철선련	<i>c. uncinata</i> Champ. et Benth	광둥, 광서, 귀주, 사천, 복건, 절강, 강서
모주철선련	<i>c. meyeniana</i> Walp	광서, 복건, 호남
단엽철선련	<i>c. henryi</i> Oliv	광서, 강서, 안미, 절강
산목통	<i>c. finetiana</i> Levl, et Vant	광서, 강서, 안미, 절강
동북철선련	<i>c. manshurica</i> Rupr.	중국 동북
황약자	<i>c. paniculata</i> Thunb	강소, 절강
이외에 백합과 식물		
단병발계	<i>Smilax scobinicaulis</i> C. H. Wright.	협서
초병발계	<i>S. stans</i> Maxim	감숙
화동발계	<i>S. sieboldi</i> Miq	산둥

3) 현재 國內에서 通用되는 威靈仙의 種類와 文獻上 轉寫過程중의 잘못으로 현재 쓰이지 않는 威靈仙을 살펴보자.

國內로 수입되는 威靈仙은 주로 북경과 천진 남방 인근지역에서 채집되어 안국 집산지와 심천 집산지에 모이며 이 곳에서 韓國輸出入組舍와 기타 中小企業을 통해 國內로 반입이 되어 전국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輸入되는 威靈仙은 *clematidis radix*로⁷⁾ 실제 아래〈표1〉같이 다양한 中國産 威靈仙 및 기타 近屬植物들이 정확히 區別되지 않은채 輸入이 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國內에서 생산되는 威靈仙은 주로 江原道와 慶北山間지역과 鎭興山 지역에서 많이 채집이 되고

있으며 주로 으아리(*clematis mandshurica* Maxim.)와 외대으아리(*clematis brachura* Maxim.)를 많이 사용하며 〈표2〉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표 2〉 國內에서 통용되는 威靈仙⁹⁾¹⁰⁾¹¹⁾¹²⁾

으아리	<i>clematis mandshurica</i> Maxim.
외대의아리	<i>clematis brachura</i> Maxim.
조희풀	<i>clematis heraclefolia</i> DC.
참으아리	<i>clematis terniflora</i> DC.

7) 지형준 외편. 大韓藥典 및 大韓藥典의 韓藥規格註解 第2改訂版. 한국메디칼인덱스사. 1998: p476

8) 김창민, 신민교, 안덕균, 이경순 외. 完譯中藥大辭典. 1998: 7卷 p4288-4289

9) 이명영 외 34인. 東醫學辭典. 驪江出版社. 1989: p1157(으아리).

10) 上同: p1157(외대으아리).

11) 陸昌洗. 原色韓國藥用植物圖鑑. 아카데미서적. 1990: p197(조희풀)

12) 辛民教. 原色臨床本草學. 泳林出版社. 1989: p508(참으아리)

文獻상에 記錄되어 있는 威靈仙 중에 轉寫過程중에 잘못으로 현재 사용되는 威靈仙이 아닌 것을 묘사하는 文獻이 있는데 <<開寶本草>> <<本草綱目>> <<救荒本草>>의 威靈仙은 현삼과식물 냉초(Veronicastrum sibiricum(L). Pennell)로 斬龍劍을 묘사하고 있으며 <<滇南本草>>에 기재되어 있는 威靈仙은 국화과식물 현맥선복화(Inula nervosa Wall.)로 草威靈임이 밝혀졌다¹³⁾

2. 本草論의 考察

性味 - <<開寶本草>> - 苦溫無毒¹⁴⁾

<<本草綱目>> - 微辛鹹¹⁵⁾

<<本草逢源>> - 苦辛溫¹⁶⁾

현재 苦辛溫한것으로 보고 있다.

歸經 - <<神農本草經疏>> - 入足太陽經¹⁷⁾

<<本草求真>> - 주로 入, 膀胱經, 腸胃에 入¹⁸⁾

<<本草再新>> - 肺, 腎 2經에 入¹⁹⁾

<<東醫學辭典>> - 入12經絡²⁰⁾

藥效에 대해선

<<本草綱目>>에선 氣가 溫하고 味가 약간 辛鹹하여 辛은 泄氣하고 鹹은 泄水하기에 風濕 痰飲의 경우 氣가 건장한 자는 빠른 효과를 보고 그 성질이 疏通을 잘하기에 長服시 眞氣를 傷할수 있다 했다²¹⁾.

<<神農本草經疏>>에서 諸風을 다스리는데 宣導善走하는 風藥이다. <腸内の 冷滯>는 주로 寒濕에 의한 것이고 <心隔痰水>는 上中焦에 停滯된 것이다.

風은 濕을 이기고 濕病은 乾燥하기에 이런 병을 다스린다.

<膀胱宿膿惡水>가 濕에 의하지 않음이 없고 <腰膝의 冷痛>도 濕이 下部로 내려가 근육에 침입했기 때문이다. 祛風除濕하면 병도 자연히 없어진다. 그러나 오래된 積癥假, 痲痺氣塊 및 折傷등은 血分에 병이 많고 氣分에 있는 경우는 드물다. 또한 모두가 濕에 의한것이 아니기에 이것으로 치료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다²²⁾.

<<本經疏證>>에선 苦味와 氣溫은 火에 속한다. 이른봄에 발생해서 늦겨울에 채취하므로 火의 性氣를 빌리지 않고 木의 屈曲을 펴고 水의 凝聚를 녹인다.....보통 풀이 싹기 돌기전에 먼저 싹이 나온다.

- 13) 김창민, 신민교, 안덕균, 이경순 외. 完譯中藥大辭典. 圖書出版 鼎談. 1998: 第7卷 p4289
斬龍劍은 輪葉婆婆納의 全草로서 微苦寒하며 感氣, 風濕性腰腿肌肉痛, 膀胱炎, 蟲咬傷을 치료한다.(完譯中藥大辭典, 8卷 p5223)
草威靈은 국화과 식물 현맥선복화의 뿌리이다. 苦辛溫하며 風寒을 제거하고 체한 食物을 제거하며 經絡을 통하게 한다. 腕腹冷痛, 消化不良에 의한 腹脹, 열격, 胃痛, 體虛에 의한 多汗, 感氣에 의한 기침, 風濕에 의한 脚氣를 치료한다.(完譯中藥大辭典, 9卷 p5524)
- 14) 김창민, 신민교, 안덕균, 이경순 외. 完譯中藥大辭典 圖書出版 鼎談 1998: 7卷 p4290
- 15) 李時珍. 圖解本草綱目. 高文社. 1987: p758
- 16) 김창민, 신민교, 안덕균, 이경순 외. 完譯中藥大辭典 圖書出版 鼎談 1998: 7卷 p4290
- 17) 欽定四庫全書, 子部 5, 醫家類 43 大成文化社 1995: p775-603
- 18) 황궁숙. 本草求真 宏業書局 1970: p85
- 19) 김창민, 신민교, 안덕균, 이경순 외. 完譯中藥大辭典 圖書出版 鼎談. 1998: 7卷 p.4290
- 20) 이명영외 34인 東醫學辭典 驪江出版社 1989: p1157
- 21) 李時珍. 圖解本草綱目. 高文社. 1987: p758
- 22) 欽定四庫全書, 子部 5, 醫家類 43, 神農本草經疏 大成文化社 1995: p775-603

그러므로 빨리 불고 흔들며 물고가는 바람과 아주 비슷하다. 그래서 主瀉風한다.

諸風은 신속하게 발생하며 宣通五臟에서 이미 原因이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宣通五臟해야 할 질환들은 바로 <腹內冷滯> <心隔痰水久積> <癥假 痰癖 氣塊> <膀胱宿膿惡水> <腰膝冷痛>이다. 뿌리는 색이 본래 검고 수염처럼 뽕뽕하고 길며 오래묵으면 점차 무성해진다. 이런 특성은 물을 상징하지 않음이 없다.

그래서 威靈仙은 물에 의지해서 氣를 보내고 行氣함으로써 水를 化하며 빠르게 배출되고 잘 흐르게 한다. 그래서 陰이 제구실을 못하여 陽이 넘쳐서 발생한 風이 없어지고 陽이 화평하지 못하여 陰이 더러워져 흐르지 아니하고 고인 것을 疏通한다.23) 기존 本草論적으로 각기 볼때 威靈仙은 氣味, 形態, 色, 歸經 등으로 일차적인 藥理를 설명할 수 있고 기타 分野別 特徵을 복합적으로 결부하여 구체적인 藥效를 파악 해볼 수 있다

氣味만을 설명할때 本經疏證과 本草問答에서는 두 가지 맛이 존재하여 있는 경우 맛의 우위와 선후로 설명을 하고 있다

桔梗의 경우 "쓴맛이 우세하여 下降하였다가 다시 上昇하여 내부의 停滯를 열고 나오는 길을 뚫는다고 보았다 辛味는 上昇하고, 苦味는 下降하므로 下降而反上昇하게되고 內部的 停滯를 열고 나오는 길을 뚫는다"24)라고 설명하고 있다.

芫花의 경우 쓴맛에서 시작하여 매운 맛이 나오므로 陰을 올리고 다시 쓴맛으로 전환하므로 陽을 내린다고 보았다. 味辛溫한 약물은 理致上 본래 上昇한다 辛味가 陰을 上昇시키고 辛味가 苦味로 돌아가므로 陽을 下降시킨다25)라고 설명하고 있다.

苦味와 辛味가 같이 있을때의 효능차이를 三稜과 蓬朮을 비교설명한 곳에서 찾아볼수 있다. 두 약물이 공히 破積의 효능을 가지나 三稜은 味苦而不辛하여 破血은 강하나 散氣는 약하고 蓬朮은 辛味를 겸해 破血하며 行氣까지 시킬 수가 있다26)

또한 氣味를 같이 설명한 약물 중 厚朴에 대한 설명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견할수 있다. "溫熱한 氣는 원래 上昇하고 補하지만 쓴맛이 심하면 上昇하고 補하는 작용이 풀어지는 작용으로 변한다. 그래서 厚朴은 寒證이나 濕證에 적당한데 만약 厚朴을 燥熱이 응결한 질환에 쓰면 비록 氣가 따뜻하여 부적합하게 보이지만 쓴맛으로 인해 上昇하고 補하는 작용이 解散하는 작용으로 바뀌어 효험이 있을 수 있다"27)

모든 根의 性이 上昇을 主하는데28) 威靈仙은 主降하는 약물로 구분하면서 降藥이 氣를 引하여 下達하는데 上焦逆氣를 降利하는 이유를 降利하는 것은 모두 上焦를 兼해서 利한다29) 하였다 또 遠志를 들어 뿌리는 上昇하지만 하늘의 氣를 많이 받으며 줄기보다 뿌리가 긴 초목은 인체내에서 下降한다30)고 설명하고 있다.

23) 鄭澍. 本經疏證附本經續疏. 6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121

24) 鄭澍. 本經疏證.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268-p270

25) 上同: p196-p198.

26) 清. 唐宗海. 國譯本草問答. 大成文化社. 1996: p85.

27) 鄭澍. 本經疏證.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204

28) 清. 唐宗海. 國譯本草問答. 大成文化社. 1996: p87.

29) 上同: p85-p86.

藥物の 色은 藥物の 作用方向이나 性向을 결정하는데 검은색은 인체의 가장 深部로 향한다. 歸歸經은 주로 足太陽膀胱經에 入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그밖에 肺,腎, 12經絡에 入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本草論的으로 威靈仙을 정리하면 藥物の 作用方向이나 性向은 威靈仙의 色과 藥用部位가 根임을 볼때 深部인 中下焦에 入하면서 또한 上焦인 肺를 함께 겸하여 利하는것을 알수 있으며 苦辛二味를 겸하여 가지고 있으며 溫한 성질로 인하여 上昇하였다가 下降하면서 燥濕通利의 작용을 통해 心膈痰水와 內部の 停滯를 풀며 厚朴과 같이 寒證 溫證에 모두 사용 할수 있어서 燥熱이 응결한 질환에 氣가 따뜻하여 부적합하게 보이지만 溫熱한 氣가 원래 가지는 上昇하고 補하는 작용이 苦味로 인해 解散하고 풀어지게끔 하는 작용으로 바뀌어 작용을 하게 됨을 알수 있다

그러므로 威靈仙이 溫補의 작용은 없이 上中下焦에 濕冷이나 燥熱이 응결한 질환에 燥濕通利解散과 消積의 效능을 가짐을 알수 있다

3. <<東醫寶鑑>>에서의 威靈仙의 主治와 適應症

東醫寶鑑에서의 威靈仙은 膀胱門³¹⁾, 腰門³²⁾, 足門³³⁾에서 單方으로 <표3>과 같이 기재되어 있음을 찾아볼수 있다. 하지만 이는 기존 醫書의 主治症을 발췌하여 서술한데 불과하여 膀胱의 宿膿惡水와 腰

痛과 足病不能行에 사용하였음을 단순히 옮겨 놓은 것에 불과 하다.

<표3> 東醫寶鑑중 威靈仙 單方用例.

膀胱門	去膀胱宿膿惡水 或 末服 或 煎服
腰門	治腰痛 生爲末,酒調二錢服<丹心> 又酒浸爲末,麪糊和丸梧子大,酒下八十九至百丸,大便下青膿,是效也
足門	一人,足病不能行 數十年 一僧教服此藥爲末 每二錢 酒調服數日能步履 <本草>

東醫寶鑑內의 處方중 威靈仙을 포함하는 方劑를 찾아보자.

內景篇중에서 痰飲門,³⁴⁾ 津液門,³⁵⁾ 外形篇에서 手門,³⁶⁾ 皮膚門,³⁷⁾ 雜病篇에서 風門,³⁸⁾ 濕門³⁹⁾에서 威靈仙을 포함한 방제를 찾아볼 수 있다

각각의 處方名과 그 主治症은 다음 <표4>와 같다.

이 표를 살펴보면 威靈仙은 內景, 外形, 雜病篇의 각 2門씩에 포함되어 있으며 內景篇 痰飲門과 津液門에 각 1處方, 外形篇의 手門에 1處方, 皮膚門에 2處方 雜病篇 風門에 4개의 處方과 濕門에 1개의 處方이 있다. 主治症을 통해 알수 있듯이 威靈仙은 痰飲과 津液및 濕病과 中風 및 蝸斜 皮膚疾患에 사용되어 祛風濕消痰鎮痛의 效능을 알수 있었다.

30) 鄭澍. 本經疏證附本經續疏.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10-p12.

31) 許浚. 東醫寶鑑. 大成文化社. 1992: 內景篇: p165.

32) 許浚. 東醫寶鑑. 大成文化社. 1992: 外形篇: p428.

33) 上同: p478

34) 上同: 內景篇: p124

35) 上同: 內景篇: p111

36) 上同: 外形篇 手門: p465

37) 上同: 外形篇 加減何首烏散: p441, 胡麻散: p437

38) 上同: 雜病篇 換骨丹: p74, 大羌活湯: p82, 疎風活血湯: p82, 靈仙除痛飲: p84

39) 上同: 雜病篇: p160

〈표 4〉 東醫寶鑑중 威靈仙을 포함한 處方用例.

內景篇	痰飲門	閉氣消痰湯: 治胸中 胃脘 至咽門 窄狹如線 疼痛 及手足 俱有 核如胡桃者
	津液門	通天愈風湯: 治口角 流涎不止 口眼喎斜
外形篇	手門	半夏芎朮湯: 治痰飲臂痛不能舉
	皮膚門	加減何首烏散: 治紫白癩風 及癰瘍風 白癩 癰疹 疥癬等疾 胡麻散: 治風熱癰疹 遍身蚤痒 或成瘡疥 及紫白癩風
雜病篇	風門	換骨丹: 治中風喎斜 癱瘓 及暗風 風痲 大羌活湯: 治風濕相搏 肢節腫痛 不可屈伸 疎風活血湯: 治四肢百節流注刺痛 皆是 風濕痰死血所致 其痛處 或腫 或紅 靈仙除痛飲: 治 肢節腫痛 痛屬火 腫屬濕 兼受 風寒而發動於 經絡之中 濕熱流注於肢節之間
	濕門	蒼橘湯: 治酒濕

4. 四象醫學的 考察

앞서 威靈仙의 기존 本草論의 설명은 陰陽五行的 사고에 의한 藥理로서 사상의학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劃一的으로 적용되는 기존의 劃一的 藥理에서 벗어나 體質과 病證에 따라 差等的으로 작용하는 病證 藥理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東武遺稿의 藥性歌에서 알수있듯이 각 약물은 偏小之臟을 중심으로 氣의 偏向性을 보충하며 肺脾肝腎의 氣運의 昇降을 조절한다는 정신을 가지고 운용되며 單味를 떠나 體質病證 안에서 새롭게 움직이는 약리를 가지며 體質바탕위에서 새로운 用藥精神을 찾아볼 수 있다 필자는 威靈仙을 고찰함에 있어서 威靈仙의 체질소속과 用藥精神 및 藥性, 病證上에서의 機能과 構造의 동시개선의 여부, 氣液之氣代謝의 조절로 인한 病證解消의 文獻的證據 등을 알아 보고자 한다.

먼저, 威靈仙의 體質所屬과 用藥精神 및 藥性を 살펴보자.

威靈仙은 上焦에 入하여 寒濕과 胃脘部의 痰飲을 解散 通利하는 효능이 있으니 이는 太陰人의 氣液之氣代謝에 있어서 呼散之氣 不足으로 中濕證이 오기 쉽다는 점에서 태음인에게 유용하다 하겠다. 또한 체내의 中下焦에 入하여 水分과 濕熱에 작용하여 水液을 通利시켜 下氣시킴으로써 太陰人의 吸聚之氣 太過로 濕熱의 蓄積으로 오는 病證에 적합한 약물이라 하겠다. 체질약물의 특성이 自律的 調節精神속에서 어느 한가지 疾患의 治療가 아닌 病證의 흐름에 영향을 주어야 하고 太陰人藥물이 갖추어야 할 特徵, 즉 氣液이 한쪽으로 몰리지 않게 하고 停滯된 痰飲이나 氣鬱現狀을 풀어주는 分別靑濁作用을 통한 氣液之氣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完實無病하게 하면서 體質病證을 관리 할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威靈仙은 太陰人藥물이 충분히 될수 있음을 알수 있었다.

그리고 東武의 藥性歌중 太陰人의 약물을 살펴보면 모두 補肺和肺,⁴⁰⁾ 建肺直肺,⁴¹⁾ 固肺立肺,⁴²⁾ 壯肺而有內守之力⁴³⁾ 壯肺而有外攘之力⁴⁴⁾ 壯肺而有

40) 朴寅商. 東醫四象要訣. 소나무. 1997: p61 麥門冬의 藥性

41) 上同: P61 五味子の 藥性

42) 上同: p61 砂糖의 藥性

43) 上同: p61 山藥의 藥性

44) 上同: p61 桔梗의 藥性

充足內外之力⁴⁵⁾ 錯綜肺氣之參伍均調⁴⁶⁾ 收斂肺元⁴⁷⁾ 등으로 太陰人의 偏小之臟인 肺의 直而伸의 기운을 도와 肺以呼 肝以吸의 昇降調節의 用藥精神을 찾을 수 있다.

실제로 威靈仙은 氣가 濫하고 味가 辛하며 苦해서 宣導善走하여 上焦에 入하여 寒濕을 제거하는 分別靑濁作用을 통해 胃脘의 上昇之力을 도우며 肺의 呼散之氣 부족을 돕는다.

이런면을 볼때 威靈仙은 效能에 있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麻黃처럼 喘으로 뚫고 나오진 못하며 九竅의 痰飲을 없앤다는 遠志와 性質과 氣味가 동일하여 遠志와 같은 醒肺之眞氣의 藥性을 가진다고 유추할 수 있다.

다음으로 태음인 병증에서 威靈仙을 사용하여 機能과 構造가 모두 개선된 것을 찾아보자.

構造의으로 上焦인 胃脘部에 작용하여 太陰調胃湯의 黃疸傷寒時氣 頭痛 身痛 無汗食滯 痞滿 腿脚無力⁴⁸⁾ 등의 主治와 비슷하게 腹內冷滯를 제거하며 心隔痰水久積을 제거하는 등 寒濕을 分別靑濁하여 胃脘의 上昇之力 및 肺의 呼散之氣를 회복시킴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中下焦인 肝黨인 腰에 작용하여 腰部 및 足部의 통증을 치료한다.⁴⁹⁾

다음으로 단순한 治濕의 개념이 아닌 氣液之氣의 呼散吸聚관계로만 설명되는 곳을 찾아보자면 먼저 威靈仙의 主講風의 작용은 肺의 呼散之氣 부족과 肝의 吸聚之氣 태과로 인해 생긴 風에 威靈仙의 宣導善走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本經疏證에서 "물에 의지

해서 氣를 보내고 行氣함으로서 水를 化하며 빠르고 신속하게 배출되고 잘 흐르게 한다 그래서 陰이 제구실을 못하여 陽이 넘쳐서 발생한 風이 없어지고 陽이 화평하지 못하여 陰이 더러워져 흐르지 않고 고인 것을 소통한다⁵⁰⁾와 같이 氣液을 돌리며 分別靑濁하여 呼散之氣를 회복시키고 風을 和平케 할수 있으며 腸內의 冷滯와 心隔痰水 또한 氣液을 돌리며 分別靑濁하여 肺의 呼散之氣 회복과 함께 제거할수 있고 膀胱宿膿懸水와 腰膝冷痛 또한 氣液을 돌려 分別靑濁으로 소변으로 유도하며 오래된 積과 癥假 癥癰 氣塊 등은 肝의 吸聚之氣 태과로 형성된 것들로 안으로 모인 裏熱을 풀어 吸聚之氣의 태과를 억제하고 肺의 呼散之氣를 도와 積白除의 효과를 낼수 있게 된다.

威靈仙의 氣液調節의 기능은 太陰人의 氣液之氣 조절의 방법 중 汗出·靑肝熱 靑心熱 및 陰血耗竭을 보충하는 등의 직접적인 기능은 없으나 직접적인 發汗과 利尿는 아니나 체내에서의 分別靑濁을 통한 化水기능과 疏通 및 排出 같은 氣液之氣의 흐름을 빠르고 뚜렷히 활성화시킬수 있으며 分別靑濁과 呼散之氣 회복을 통해 얻어지는 濕의 移動과 調節로 2차적 潤燥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사상방제중에서의 威靈仙을 살펴보면 <표5>와 같다.

單方으로 쓰인 用例는 아래 <표6>과 같다.

45) 上同; p61 牛黃의 藥性

46) 上同; p61 石菖蒲의 藥性

47) 上同; p61 黃芩의 藥性

48) 李濟馬. 東醫四象新編. 韓林院. 1990; p61.

49) 朴寅商編著. 東醫四象要訣. 소나무. 1997; 腰部 p136. 足部 p138.

50) 鄒澍. 本經疏證附本經續疏. 卷6.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121

〈표 5〉 威靈仙을 포함한 四象方劑 用例.

寒痰	熱多寒少湯 加 威靈仙 海東皮 遠志 石蒼浦<大典>
痒及麻木	調胃升清湯 加 威靈仙 海東皮<大典>
肩臂痛	調胃升清湯 加 威靈仙 海東皮 棗本3錢<大典> 熱多寒少湯 加 威靈仙 稀簽3錢<大典>
中風	調胃續命湯 加 威靈仙 海東皮 遠志 竹茹 稀簽 竹瀝<大典>
	調胃續命湯 加 桑枝 續斷5錢 威靈仙等 隨症加減<要訣>
	通治-調胃升清湯 加 威靈仙 海東皮
蝸斜	熱多寒少湯 加 威靈仙 海東皮 遠志 石蒼浦 1錢<大典>
破傷風	熱多寒少湯 加 皂角 大黃 杏仁 各 1錢을 2.3貼 服用後 威靈仙 蒼耳子 蟬蛻 稀簽 杏仁 大黃加減
	調胃升清湯 加 皂角 大黃 杏仁 1錢 服用後
	威靈仙 蒼耳子 蟬蛻 稀簽 杏仁 大黃加減
風疝	調胃升清湯 加 威靈仙 海東皮 <大典>
歷節風	調胃升清湯 加 威靈仙 海東皮 蟬蛻 <大典>
靜脈瘤	經驗清心湯 加 蒲公英5錢 威靈仙 1-2錢 蒲黃1錢<要訣>

〈표 6〉 威靈仙의 單方用例.

腰痛	威靈仙 1斤 酒浸七日 爲末糊丸 梧子大 每二十九 酒下<要訣>
	生으로 作末하여 2錢을 酒調服한다<大典>
足趾 (紅腫冷痺爛瘡)	威靈仙 1斤 酒浸七日 爲末糊丸 梧子大 每二十九 酒下<要訣>
脚氣(風濕瘡)	威靈仙-酒浸爲末作丸 梧子大 每四十九 空心 白湯下<要訣>

四象方劑를 살펴보면 寒痰⁵¹⁾과 皮膚 痒及麻木⁵²⁾ 肩臂痛⁵³⁾ 中風⁵⁴⁾ 蝸斜⁵⁵⁾ 破傷風⁵⁶⁾ 風疝⁵⁷⁾ 歷節風⁵⁸⁾ 靜脈瘤⁵⁹⁾의 病症에 威靈仙을 가미하여 運川한것을 찾아 볼수 있다. 寒痰에 주로 太陰調胃湯 調胃升清湯 熊膽散 등을 사용하나 肝燥熱證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熱多寒少湯에 威靈仙 및 기타 藥物을 가하여 치료함을 알수 있다. 痒及麻木에는 風濕氣

51) 朴奭彦, 東醫四象大典, 醫道韓國社, 1997: p438

52) 上同: p500.

53) 上同: p500.

54) 上同: p391.

朴寅商編著, 東醫四象要訣, 소나무, 1997: p152. 調胃續命湯 加 桑枝 續斷 5錢 威靈仙等 隨症加減.

朴奭彦, 東醫四象大典, 醫道韓國社, 1997: p395. 中風の 通治.

55) 朴奭彦, 東醫四象大典, 醫道韓國社, 1997: p393.

56) 上同: p397.

57) 上同: P395.

58) 上同: p396.

59) 朴寅商編著, 東醫四象要訣, 소나무, 1997: p156.

虛濕痰의 소치로 調胃升清湯에 威靈仙 海東皮를 가하여 치료하며 肩臂痛에는 表裏病證에 따라 調胃升清湯 및 熱多寒少湯에 威靈仙 및 기타 藥物을 가하여 치료하고 中風에서의 調胃續命湯은 太陰調胃湯에서 五味子を 빼고 藥本 3, 4錢을 가하고 或은 遠志 竹茹 威靈仙 海東皮 豨薺 竹茹 등을 가감하여 쓰는 처방이다. 通治로는 調胃升清湯에 威靈仙과 海東皮를 사용하고 있다. 燥熱證이 있는 와사에는 熱多寒少湯에 威靈仙 및 기타 약물을 가하여 치료하며 破傷風에는 熱多寒少湯 및 調胃升清湯에 威靈仙 및 기타 약물을 가하여 치료하였으며 歷節風과 風痺에 있어서는 調胃升清湯에 威靈仙을 가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이상과 같이 威靈仙은 表裏病證에 공히 사용될수 있는 약물로서 本草論의인 藥理作用이 太陰人의 體質病證에 소속되어서도 表裏病證 모두에 작용하는 약리를 가짐을 處方用例를 통해 알수 있었다. 또한 東醫寶鑑處方에서와 같이 四象處方運用에 있어서도 中風과 皮膚 痰飲 破傷風 風痺 歷節風 靜脈痛 등에 祛風 治痰 治濕 止痛의 보다 현저한 효능을 가지고 있음을 또한 알수 있었다. 單方으로 威靈仙이 쓰이는 主治症을 보면 腰痛⁶⁰⁾ 足趾(紅腫冷痺爛瘡)⁶¹⁾ 脚氣(風濕瘡)⁶²⁾를 치료하며 表裏病證에 구애없이 燥熱과 風濕이 섞여 있다라고 모두 사용할수 있음을 알수 있다.

Ⅲ. 結 論

以上的 文獻的 考察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을 수 있었다

1. 國內에 輸入되는 威靈仙은 Clematidis Radix 로 실제 다양한 中國産 威靈仙들이 정확히 區別되지 않은채 輸入되고 있는 실정이다. 國內에서 流通되는 威靈仙은 으아리(Clematis mandshurica Maxim.) 외대으아리(Clematis brachyura Maxim.)를 주로 使用하고 있다.
2. 기존 本草書인 <<開寶本草>>, <<本草綱目>>, <<救荒本草>>의 설명된 威靈仙은 현재 通用中인 威靈仙이 아닌 현삼과 식물 냉초로 斬能劍이며 <<滇南本草>>의 위령선 또한 국화과 식물 현맥선복화로 草威靈임이 밝혀졌다.
3. 威靈仙는 氣味가 苦辛溫하여 厚朴과 같이 燥熱이 凝結한 疾患에 使用할수 있는 特徵을 가진다.
4. 威靈仙의 體質所屬은 太陰人藥物로서 用藥精神 및 藥性은 太陰人의 陽溫之氣의 부족과 陰冷之氣의 過多狀態에서 出現하는 氣液之氣 病證을 分別清濁하여 肺以呼 肝以吸의 升降調節의 用藥精神을 찾을수 있고 遠志와 性質과 氣味가 동일하여 遠志와 같은 醒肺之眞氣의 藥性을 가진다고 類推할수 있다.
5. 文獻上에서 威靈仙이 機能과 構造를 모두 改善시킨 것을 확인 할수 있으며 단순한 治濕이 아닌 氣液之氣의 呼散吸聚 관계로 설명 가능함을 찾을 수 있었다.
6. 威靈仙과 같이 四象體質藥物의 客觀化에 文獻的考察의 接近方法은 그 有用性이 매우 크다 할 수 있으며 앞으로 다른 藥物에 까지도 더욱 研究가 必要하다고 생각된다.

60) 朴寅商編著. 東醫四象要訣. 소나무. 1997: p136.
朴奭彦. 東醫四象大典. 醫道韓國社. 1977: p490.
61) 朴寅商編著. 東醫四象要訣. 소나무. 1997: P138.
62) 上同: p139.

參 考 文 獻

1. 고경식. 관속식물분류학. 세문사. 1994.
2. 김창민, 신민교, 안덕균, 이경순 외. 完譯中藥大辭典. 圖書出版鼎談. 1998: p4287
3. 清, 唐宗海. 國譯本草問答. 大成文化社. 1996.
4. 朴奭彦. 東醫四象大典. 醫道韓國社. 1977.
5. 朴性植. 東武 李濟馬의 家系와 生涯에 대한 研究. 四象醫學會誌. 1996.
6. 朴寅商編著. 東醫四象要訣. 소나무. 1997.
7. 宋一炳. 韓醫學에 나타난 陰陽觀. 四象醫學會誌. 1997..
8. 宋正模. 四象醫學의 原理와 哲學의 背景에 대한 考察. 四象醫學會誌. 1992.
9. 이명영외 34인. 東醫學辭典. 驪江出版社. 1989.
10. 李時珍. 圖解本草綱目. 高文社. 1987.
11. 李濟馬. 國譯東醫壽世保元. 驪江出版社. 1994
12. 李濟馬. 東醫四象新編. 韓林院. 1990.
13. 陸昌洗. 原色韓國藥用植物圖鑑. 아카데미서적. 1990.
14. 許浚. 東醫寶鑑. 大成文化社. 1992.
15. 鄒澍. 本經疏證附 本經續疏 卷6.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16. 황궁숙. 本草求真. 宏業書局. 1970.
17. 欽定四庫全書. 子部5. 醫家類43. 大成文化社. 1995.
18. 陳存仁. 圖說韓方醫藥大辭典 第1卷. 講談社. 1982.